

■ 5일앞 민주 대선 경선 관전포인트

판세 뒤흔들 광주·전남 민심은

초반 경선 결과 이변 일어날지... 결선 투표 이뤄질지 초미 관심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1강(문재인), 2중(손학규, 김두관), 2약(정세균, 박준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이번 경선은 변수가 많아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경선의 관전 포인트를 조망해본다.

◇초반 경선 결과=이번 경선에서 초반 경선 지역인 제주, 울산, 강원, 충북 지역의 투표 결과는 문재인 대세론과 손학규, 김두관 후보의 대반전 여부를 결정짓는 전망이다.

손학규, 김두관 후보가 초반에 이변을 일으키며 기선을 잡지 못한다면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초반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는 전체적인 경선 판도를 뒤흔들면서 광주·전남지역 경선 결과에 따라 대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다.

◇광주·전남 민심=경선 중반에 실시되는 광주·전남지역 경선 결과는 전체적인 판세를 결정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광주·전남지역 경선 결과는 수도권 등의 경선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민심의 흐름은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후보가 혼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준영 후보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강운태 광주시장 등 자치단체장의 지

원 여부도 광주·전남지역 경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준영 후보 행보=DJ(김대중 전 대통령)와 호남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는 박준영 후보의 완주 여부도 관심사다. 경선 중반 자신의 정치적 철학에 부합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후보 측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경선을 끝까지 완주한 이후, 결선 투표에서 적절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결선 투표가 현실화된다면 박 후보의 지지는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거인단 규모=선거인단 규모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거인단에 자발적 유권자가 대거 참여하면 경선 결과가 여론조사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문 후보에 유리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초반 경선

지역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현재의 여론조사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2002년 경선 때 노무현 후보가, 2007년 경선 때 정동영 후보가 경선 시작 전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었지만 초반 경선 전의 승리를 토대로 여론의 흐름을 뒤집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결선투표 이뤄질까=순회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다시 한번 경선을 벌이는 결선투표가 실시될 지도 관심사다.

문 후보는 곧바로 대선행 티켓을 확보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후보들은 결선투표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것만 과반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된다면 정에서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반값 등록금 포장마차

민주통합당의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을 알리기 위한 '반값등록금 포장마차'가 1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앞 광장에서 열렸다. 우상호 반값등록금 특별위원장이 손님들에게 직접 음식을 가져다주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을 알리기 위한 '반값등록금 포장마차'가 1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앞 광장에서 열렸다. 우상호 반값등록금 특별위원장이 손님들에게 직접 음식을 가져다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대선후보 선출 선거인단 모집

광주·전남 단체장 역할 주목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활발한 가운데 광주·전남 단체장들의 역할이 주목된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경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능가할 만한 지역 조직력을 갖춘 단체장들의 역할에 따라 경선 결과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전남지역 C단체장들이 지역 단체장들에게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일부 지역 단체장들은 특정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측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이 직접 선거인단 모집을 독려할 경우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측근들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광주지역 A단체장 측근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자 선거인단 모집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전남지역 B단체장은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전남지역 C단체장들이 지역 단체장들에게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일부 지역 단체장들은 특정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거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인들에게 선거인단 모집을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장들이 대선 경선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부 대선 후보들과 개인적인 인연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경선 후 형성될 중앙 정치지형이 자신들의 입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지역 단체장들은 1년 반 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을 고려해 특정 대선 캠프에 몸담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한배'를 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년 6·15때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19~20일 광주 방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경제 분야에서 남북간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경제연합' 구상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취임 즉시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내년 6·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며 “내년 정전협정 60주년 즈음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경제연합은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남북연합'에 앞서 우선 경제 분야에서 사실상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공동체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와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며 이를 통한

“30~80시대(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000만명)”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에 필요한 '함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 설립 구상도 밝혔다.

한편 문 후보는 19~20일 광주를 방문해 선거인단 모집 캠페인을 벌이는 등 광주·전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문 후보는 19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모집 캠페인을 벌인 뒤 20일 오전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환담할 계획이다.

이어 광주·전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여수 엑스포를 방문해 향후 엑스포 시설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거보조금 150억 새누리에 갈라”

민주당 ‘전전공공’

선거보조금과 관련, 민주통합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범야권 후보로 단일화돼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면 새누리당 선거보조금만 배로 늘려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 등록기간(11월25~26일) 중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선거보조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대선후보를 낸 다른 정당에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올해 선거보조금 규모는 360억원 정도로 정해져 있고, 이 금액은 국회의원 이 있고 대선후보가 등록

된 정당에 배분한다”고 말했다. 의원 수와 19대 총선에서의 정당 득표율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에는 163억5000만원, 민주당 152억6000만원, 통합진보당 28억원, 선진통일당 21억7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만약 안 원장이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의 선거보조금은 300억원 정도에 달하는 셈이 된다. 다만, 후보단일화 과정이 진통을 겪다가 11월말 이후로 늦춰진다면 후보단일화에서의 승패를 떠나 민주당은 일단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독도 표지석... 대한민국 땅 재천명

李대통령 휘호 직접 써

대한민국 땅 독도에 국민의 수호의지가 담긴 표지석이 건립됐다.

경북도는 19일 독도의 동도 망양대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용 도지사, 이병석 국회의원, 김찬 문화체육관광, 최수일 울릉군수, 독도 주민 김성도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표지석' 제막식을 열었다.

표지석은 독도경비대가 주둔한 동도의 망양대에 있는 국기게양대 앞에 설치됐다.

대통령 이름으로 된 표지석이 독도에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도는 애초 광복절인 15일에 경축식과 함께 제막식을 하려고 했으나 기상 악화로 독도에 들어가지 못함에



19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용 경북지사 등이 대통령 명의의 '독도수호 표지석' 제막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따라 제막식을 미뤘다. 이 대통령은 표지석에 새길 독도 휘호를 직접 써 영토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흑요석(오석) 재질의 표지석은 높이 115cm, 가로·세로 각각

30cm다. 표지석은 앞면에 이명박 대통령 친필로 '독도', 뒷면에 '대한민국', 측면에 '이천십이년 여름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자사고 보문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신청으로 인해 물의를 빚어 사과드립니다.

보문고등학교는 자사고 출범 전 교육청과의 합의 사항(과목별 과원 교사 공립 특채) 이행을 계속 촉구해 왔으나 교육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근까지 갈등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현재 1, 2학년까지는 졸업까지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지만 2013학년도 신입생들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는 신뢰를 주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 1, 2학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판단하고 일반고로 전환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본교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합의를 통해 지난 16일 일반고 전환 신청을 철회하고 계속해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학생, 학부모님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성장기의 학생들은 하찮은 일에도 상처 받기 쉽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학생들이 받은 상처와 이를 지켜보는 부모님

들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학교에 대한 불신, 이 모든 것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비롯하였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님께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은 학생과 학부모님의 상처받은 자존감에 대해 열정적인 교육으로 치유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저희 보문고를 안타깝게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교육의 도시, 광주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학교의 일이 곧 당신 자녀의 학교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교의 일로 인해 시민여러분들께서 받은 충격에 대해 본교는 더욱 철저히 성의있는 교육으로 광주교육을 위해 일조하는 학교로 거듭 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본교 학교 운영에 대한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신뢰받기 위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광주교육을 선도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3학년도 신입생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교 교직원 일동은 노력하겠습니다.

- 광주에서 전교생을 수용하는 기숙형 자사고의 면모에 맞게 품격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습니다.
- 지식교육과 함께 창의력과 인격도야를 목표로 융합형 인재 양성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 자사고만의 교육과정을 수행 완성하기위해 최상의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본교를 질타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머리 숙여 달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사과문은 학생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2012년 8월 20일

학교법인 보문학숙 이사장
자율형 사립고 보문고등학교장